



# 외산 양육산물 대응방안 및 국내 양육산업 전망

지난해 9월11일 전국의 양육인들이 모여 서울에서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 반대 집회를 실시한 바 있다. 절편녹용에 대한 적당한 대응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수입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한국의 양육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무역에 대한 장벽이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언제까지나 절편수입녹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나름대로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뉴질랜드가 우리나라 한의약시장에 자신들의 녹용에 대한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조기절각에 의한 품질의 우수성, 방목을 통한 녹용 생산, 저렴한 가격 등이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70~75일만에 절각을 실시, 품질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응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조기절각에 의한 우수한 품질의 녹용 생산이 필요하다. 조기절각을 실시하면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우수한 품질의 녹용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조기절각 실시 후 다시 자라나는 재생뿔 역시 품질과

생산량이 우수해 굳이 조기절각을 실시한다고 생산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뉴질랜드는 방목을 통해 녹용을 생산한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내세울만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방목을 실시한다

고는 하나 사슴이 섭취하는 사료는 화본과 작물 한 두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대문헌에는 수백가지 산야초를 먹고 자란 사슴의 녹용만이 그 약효를 발휘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록 방목은 아니더라도 갖가지 산야초와 사료를 공급하여 생산하는 우리나라 녹용의 품질이 월등히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방목을 실시할 경우 개



배소식/본회 부회장

체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각종 질병 발견도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기생충 구제도 방목을 실시하면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사슴장을 통한 집약관리를 실시하므로 질병발견이 쉽고 적기에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체관리를 통해 최대한 건강한 사슴을 만들며 양질의 녹용생산에 힘을 쏟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용 가격 문제다. 뉴질랜드



녹용이 값싼 이유는 사슴농장의 전업화가 이루어진 것과 함께 고기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사슴사육 목적은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함이 첫 번째로 녹용은 그 부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녹용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슴고기에 대한 대중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녹용생산 일변도에서 사슴고기를 함께 병행해야 대외 경쟁력을 한층 더 재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몇 년째 사슴수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내 사슴가격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슴을 수입해도 별다른 재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녹용도 마찬가지로 사슴고기를 병행, 판매가를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 국산녹용과 가격경쟁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사슴과 마찬가지로 녹용도 수입될 일이 없을 것이다. 국산 녹용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소비를 더욱 증가시킨다면 국산 녹용에 대한 대중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후에는 생산량을 따라가기 위해 더욱 많은 개체의 사슴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대외 경쟁력은 보다 굳건해 질 것이다.

물론 사슴고기와의 병행만으로 녹용가격을 낮출 수는 없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산비로 양질의 녹용을 생산할 수 있는 사양관리 프로그램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오래전부터 실시해오던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생산비는 예전보다 훨씬 증가해 비효율적인 사

양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건국대학교에 녹용 연구센터가 개설됐다. 이곳에서는 향후 사슴과 녹용에 대한 다채로운 연구 결과를 속속 발표할 것이고 그 뒤는 국내 모든 농가에게 돌아갈 것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좋은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슴은 21세기 유망축종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암사슴 팔기를 꺼리고 있으며 암사슴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 소, 돼지, 닭의 대체식품으로 사슴고기가 각광받고 있으며 이에 사슴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암사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국내의 사슴시장도 점차 회복세를 타고 있다. 울타리 사슴 및 녹용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선을 타고 있다는 반가운 이야기가 들린다. 또한 사슴사육농가의 주 고객층인 실버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실시하는 주 5일 근무제로 사슴농가를 찾는 인구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사슴에 대해 호조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을 갖고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축산업은 사이클을 탄다. 소가, 또 돼지가 그러했듯 힘든 시기가 지나면 곧 좋은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 시기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농가는 힘든 시기를 곳곳이 버텨내고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낸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한국양육**